

갈라디아서 소개

윌리엄 더니스(William Dyrness) 박사는 갈라디아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써 얻게 된 위대한 자유와 사랑을 묘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러신학교에서 신학과 문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윌리엄 더니스(William Dyrness) 박사입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문화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신학과 예술을 공부합니다. 예술이 신학적 진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연구합니다. 저는 이 렌즈를 통해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은 "자유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입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보자면, 갈라디아인들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괜찮지만,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은 화가 날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거짓된 딜레마임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까지도 구원해 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요셉과 아기 예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아기 예수에 대한 요셉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그림의 중요한 점은 어떤 의미에서 요셉이 그리스도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요셉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입양했고, 이 그림에서 요셉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사랑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한 훌륭한 시각적 표현입니다. 시각적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말한 것의 묘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아기 예수에 대한 요셉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격노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보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포기하느냐?--율법 아래 있어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이 멋진 정체성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격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3 장 23 부터 28 절까지 요약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헐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